

# '5·18 망언' 광주서 한국당 앞 규탄대회

광주시민사회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과 근절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 앞에서 '한국당 규탄 시·도민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대회는 오월영령에 대한 복원을 시작으로,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성명서 낭독·주제발언·오월어머니 합창단 공연·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운동본부는 대회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5·18 왜곡·편향 처벌 특별법 제정 ▲역사 왜곡 민·관 공동대응과 엄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5·18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사죄·해체의 뜻을 담은 파켓을 든 참가자들은 "망언 의원 사퇴하라", "5·18 왜곡 처벌하라", "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원순석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8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모독한 반민주세력에 의해 처참히 유린당했다"면서 "망언 의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으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선출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징계와 의원직 제명은 커녕 망언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한국당은 5·18을 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러 "5·18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과 헬기사격·발포명령자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건물에 '자유한국당 사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등이 쓰여진 파켓을 붙이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당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망언 의원 3인과 국유논객 지만원씨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에 페인트칠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역사 왜곡 근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대전·대구·제주·강원 춘천 등지에서 3월 한달 동안 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 일부 의원과 국유논

## 망언 의원3인 제명·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서울 등 전국 각지서 한국당 규탄집회 열려



봄을 재촉하는 창경궁 신수유 예고했던 비가 내리지 않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 신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다.

## 전두환 형사재판 출석 앞두고 광주경찰청 '비상'

사지명여해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의 경호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씨의 재판에 6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한다.

전씨의 재판 출석 의사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됨에 따라 법원이 경호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사복·정복 차림을 한 경찰기

동대 80명이 곳곳에 배치돼 재판정 내 질서를 유지한다.

법원 외곽경비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방범소총대·여경 등으로 구성된 7개 중대·1제대 500여 명이 맡는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강력·형사 3개 팀 소속 형사 10여 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전씨의 실제 출석 여부와 5월·시민사회단체의 동향에 따라 상황을 4단계로 나눠 투입 경찰력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남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 240여 명도 추가 배

객 지만원 씨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연 공청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편향과 왜곡을 일삼아 공분을 사고 있다.

최남규 기자

## 영출신 IS신부 아기 사망 후폭풍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미마 베쿰(19)의 생후 3주된 아기가 숨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베쿰의 국적을 박탈해 귀국을 막은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이 아기 사망으로 인해 야당 노동당은 물론 교계, 법조계 등으로부터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사건이 보수당 당수직 도전 야망을 가지고 있는 자비드 장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8~200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공소국장(DPP)을 지낸 켄 맥도널드 경은 자비드 장관을 향해 "영국을 자국민 통제능력이 없는 바나나공화국처럼 취급했다"고 맹비난했다. 바나나공화국이란 바나나 등 한정된 일차산업 상품만을 수출하면서 미국 등 외국자본에 의존한 부패한 독재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앨런 스미스 주교 역시 "베쿰은 적절한 조사를 받은 후 귀국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법을 어겼다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된다. 만약 국민화해라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무장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에 에북 노동당 그림자내각 내무장관도 "누군가를 무국적자로 만들 어버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영국 여성의 국적을 박탈함으로써 그녀의 죄는 아기가 죽었다. 냉혹하고 비인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4년 전 영국 런던을 떠나 시리아에서 IS에 합류한 뒤 네덜란드 출신 IS 반군과 결혼한 베쿰은 지난달 시리아 북부 난민 수용소에서 세번째 아기를 낳았다. 앞서 낳았던 두 아이는 질병과 영양실조로 잃었고, 남편은 쿠르드군에 투항해 구금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고속선, 고래 추정 물체와 충돌 80여명 부상

일본에서 고속선이 고래로 추정되는 생물체와 충돌해 승객 8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정오 쯤 니가타 현 사토 섬 앞 바다에서 발생했다. 니가타 항을 출발해 사토섬 료쓰 항으로 가던 제트고속선이 해양생물로 보이는 물체와 충돌한 것.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80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13명은 머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고속선 운영사는 10일 오전 니가타 시내에 간부들이 모여 사고의 현황과 향후의 대응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선박 뒷부분에 15cm의 균열이 생겼고, 후반의 수중 날개가 구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 베트남서 관광버스 전복 한국인 7명 부상

베트남에서 관광버스 전복사고로 우리나라 관광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운전사는 사망했다.

현지언론 VN인포데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9일 오후 1시쯤 중부 빈투언 주의 해변도시 판 티엣으로 향하던 비탈길에서 발생했다. 버스가 갑자기 도로에서 벗어나 8m 아래로 추락한 것.

현지 당국자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한 7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투어 가이드를 겸한 운전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 195명 태운 加여객기, 화재로 뉴욕 비상착륙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9일 아침(현지시간) 캐나다 에어 소속의 여객기 한대가 비상착륙을 하면서 공항일대가 한 때 폐쇄되었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캐나다 에어트랜센트 942편 항공기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출발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로 향하던 중 화물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뉴어크 공항으로 임시 선회해 비상착륙을 시도했다고 미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했다. 보잉 737 기종의 이 여객기에는 189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 등 총 195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착륙후 비상대피용 슬라이드를 타고 모두 대피했다고 항공사 예비 캐피타 대변인은 말했다.

공항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뉴어크 공항은 약 한시간 동안 폐쇄되었다. 이 때문에 여객기 이착륙이 최소 45분 이상 모두 지연되었다.

그러나 기내 화물함에서 불길은 발견되지 않았고, 연기가 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다.

## 5월 강수량 적을 듯...영농기 대비 필요

영농기철인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국지적 가뭄 대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뭄'에 '경보'를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349.6mm로

평년의 108% 수준이다.

3월과 4월 강수량은 각각 평년의 47.3~59.8mm, 56.1~89.8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나 5월에는 평년의 77.9~114.4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수율은 농업저수지의 경우 평년의 120%, 다목적 댐은 151%, 용수 댐은 137% 수준으로 모내기철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5월에 평년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된 탓에 가뭄 관심(약한가뭄)단계 인 경북 포항과 전남 곡성, 강원 속초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서·산간 지역의 소규모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곳에 해저관로와 지하저류지 설치를 늘리는 중장기 계획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적 가뭄 지역의 수원 이용 현황과 장기 계획의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한다.

뉴시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발적으로 응진 민력어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